

# “스카우트가 사찰로 어린이 부른다”

### 어린이청소년법회 참여자 지난해 보다 1.5배 늘어 조계종 포교원, “올해 안에 불교연맹 출범목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의 불교스카우트 제도가 어린이 청소년들을 사찰법회로 동참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찰의 학생 법회는 단순히 법문만 듣는 단순한 신행활동에 불과하지만 스카우트에 가입 되면 봉사활동 참여는 물론 열심히 활동하면 각종 포상도 뒤따르는 등 혜택이 많아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유진상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 팀장은 “불교스카우트 발대식을 통해 실제로 사찰법회에 참석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해에 비해 약 1.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포교원은 지난해부터 각 지역 사찰에 불교스카우트 창단을 통해 어린이청소년법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김용숙 청계사 포교과장은 “주 5일제 수업이 되면서 불교스카우트에 가입하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요즘에는 오히려 학부모들이 먼저 찾아와 가입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발대식을 처음 진행한 지난 해 5월에는 가입학생이 18명이었는데 현재는 3배 정도 늘어난 50여 명이 넘는 어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청계사는 한 달에 한 번 불교스카우트 행사를 진행한다. 또 정각사, 운각사 등 인근지역사찰과 연합해 캠프, 법회 등도 열고 있다.

정성희 부산 흥법사 불교스카우트 지도교사도 “사찰에서만 이뤄지는 법회는 학생들이 쉽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지만 불교스카우트

### 불교스카우트, 26개 사찰 가입 6월 중으로 불교연맹 창립 가능

카우트는 대외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이번 흥법사 불교스카우트 대원들은 부산 제등행렬에도 참여한다. 학생들이 대외 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 같다”고 참여도가 높은 이유를 진단했다.

유 팀장은 “불교스카우트에 가입하면 ▷봉사활동 참여 및 봉사시간 확보 ▷대학입학사정관계 활용 가능 ▷외국대학 입학 시 추천서 발급 ▷선생 스카우트, 모범대원, 봉사대원 표창 등 각종 다양한 포상 등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불교스카우트는 서울, 경기, 강원,



4월 28일 서울 경국사에서 불교스카우트 연합발대식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수쿠사, 약사사 등 5개 사찰에서 8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경남 지역 등 전국 26개 사찰사 발대식이 이뤄져 창단됐으며, 840여 명이 가입돼 있다. 여기에 앞으로 안양 한마음선원, 서울 불광사, 양산 통도사, 김천 직지사 등 6개 사찰사 내달 안으로 추가 창단할 예정이다.

유 팀장은 “봉축행사를 앞두고 있어 발대식 진행이 연기된 사찰이 많다. 봉축행사가 끝나면 불교스카우트 발대식을 진행하는 사찰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포교원은 불교스카우트 발대식을 활성화 해 올해 안까지 불교연맹 창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불교연맹의 창립을 위해서는 5개 지역 사찰사 1000명 이상의 회원이 확

보돼야 한다. 유 팀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6월 안까지 불교연맹 창립 조건이 모두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한국스카우트연맹에 불교연맹 창립을 적극 요청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포교부장 송목 스님은 “6월 중순 고불법회를 통해 각 사찰의 불교스카우트가 소속·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화랑도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추가로 마련해 각 사찰의 불교스카우트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soe94@hyunbul.com

## “조직 활성화 및 ‘1인 1수행’에 전력”

### 공불련, 제8대 회장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 선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를 보다 더 탄탄한 조직체로 만들어 불교계 대표 직능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 이하 공불련)가 4월 28~29일 중주 석종사에서 제21차 성지순례법회 및 대의원총회를 실시하고, 제8대 회장으로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56·사진)으로 선출했다.

김상인 회장은 前 제7대 설동근 회장의 갑작스레 사퇴로 그동안 어수선했던 공불련 분위기를 전환하고 조직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회장 취임에 대해 “처음 회장직 재의를 받고 부담이 컸다. 공불련에 열심히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00년 공불련이 처음 창립할 때부터 활동했던 원년멤버다. 그는 창립 당시 공불련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행안부 불자회를 통해 많은 신행활동을 펼쳐오며 공불련 일원으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처럼 직능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행안부 불자회를 구성해 신행활동을 펼쳐왔다. 김 회장은 “당시 의욕이 넘쳐 서울 법원사에서 1주일에 1번씩 법회를 진행했다. 법회에 참가하는 사람은 회장인 나와 총무뿐이었지만 꾸준한 활동을 이어온 탓인지 20명이었던 회원이 현재 80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도 법원사에서 매월 넷째 주 수요일 행안부 불자회 회원들과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12년 동안 공불련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의 비활성화가 가장 아쉬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행정기관은 총 290개에 달한다. 그 중 150개 기관이 공불련에 가입된 상황이다. 김 회장은 “올해 연말까지 공불련 가입기관을 최소 200개에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동안 공불련은 중앙을 비롯해 지자체모임 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연합회가 중심이 돼 기관단위로 불자회가 조직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모든 행정기관이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되도록 힘을 생 각하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불련의 조직화가 안되면 ‘한 불자 한 수행법 갖기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 회장은 “기왕 불자가 됐으니 불자



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불교는 타종교와 달리 부처님만 믿는다고 해서 불도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각자 근기에 맞는 다양한 수행법을 통해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시절 불교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불교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김 회장은 3년 전부터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 (금강경)을 읽고 108배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공불련은 1년에 수계법회, 창립법회, 송년법회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직 안정화가 되면

### 공불련 가입기관 200개 만들 것 ‘금강경’ 독송하며 하루 시작해

템플스테이, 3000배, 경전독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뜻을 같이하는 불자들이 정기적인 소규모 모임을 통해 공불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공불련 앞날을 위해 많은 숙제들이 남아있지만 무엇보다 조직의 기초를 닦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 일이 원만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공불련 회원들을 비롯한 불교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1년차를 맞은 성지순례법회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석종사 금릉선원장 해국 스님 등을 비롯해 공불련 회원 및 가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입재식에 이어 석종사 성돈 스님의 참선실수, 철양정진 등이 진행됐다. 또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김상인 회장을 비롯해 사무총장에 김우호 행정안전부 인력기획과장 등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해 집행부를 구성했다.

이은정 기자

## 바쁜 현대인 위한 도심 속 참선 프로

### 국제선센터, 6월 6~10일 참선집중수행과정 실시

한국불교의 대표 수행인 간화선을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설됐다. 국제선센터(주지 법정)는 그동안 시간·공간적 제약으로 참선을 하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 6월 6~10일 참선집중수행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좌선과 습의, 다도, 자유 수행, 예불, 화두결택, 강의 등을 진행한다. 대흥사 회주 보선 스님은 화두결택법문을 하며 ▷교육원 교육부장 법인 스님이 ‘수행론’ ▷미항사 주지 금강 스님이 ‘선이란 무엇인가’ ‘좌선과의 발원’ ‘화두드는 법’ ▷국제선센터 국제국장 명법 스님의 ‘생할속의 선’ 등을 강의한다. 또 금강 스님과 국제선센터 선강 법오 스님이 참선실수를 지도한다.

국제선센터 주지 법정 스님은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참선프로그램과 달리 도심을 벗어나지 않고 집중수행을 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종교와 상관없이 참선을 체험해 보고 싶거나, 알찬 참선프로그램을 찾던 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6월 4일까지 접수마감이며, 선착순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참가비는 35만원. (02)2650-2214

이은정 기자

## 자원봉사자 발대식 개최

### 1000여명 봉사자 참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4월 28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4월 28일 여수세계박람회 엑스포 홀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종선 스님, 강동석 위원장(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참여해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의 결의를 다졌다.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은 사이버교육 및 현장교육을 통한 소양교육 및 상황대처능력 향상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4월 2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5월 11일 전야제부터 8월 12일 까지 종합상황실과 안내소, 시내 주요도로 및 행사장에 배치돼 시설관리, 교통안전, 문화예술 행사지원 등 박람회의 원만 회향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02)723-5101 이은정 기자

## 봉축맞이 공모전 다채

### 파라미타, 등제작 공모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가 5월 20일 서울 종각역 우정국로 야외 특설무대에서 ‘제12회 파라미타 음악놀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를 맘껏 펼칠 수 있는 무대로서, 장르구분 없이 3분 이내의 공연을 펼치면 된다. 대상에게는 50만원의 장학금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상이 수여되며, 접수마감은 5월 13일까지이다. (02)723-6165

이밖에 파라미타는 5월 15일까지 제3회 전국 청소년 등(僮) 작품 공모를 실시한다. 한국의 전통미와 예술성을 살린 등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로 순수 제작한 등이어야 한다. 또 연등행렬시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접수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가능하다. (02)2011-1744

이은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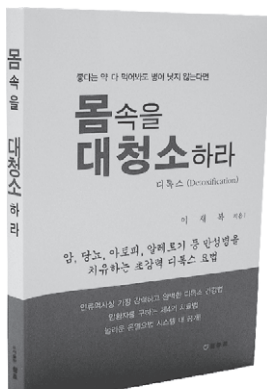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책도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사은 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치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 중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여년간 수십만명이 체험한 건강법을 지도 합니다. 단, 한번만 체험해 보시면 곧바로 확신이 옵니다.

### 이 운동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 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척추(냉직)를 쉽게 푸는 법 수
-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뚫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법 수록
- ▶ 약어기족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통증을 뿌리 채 뽑는 법 수록
- ▶ 단침이 뭉글뭉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 중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짙어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짙~뿔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신면 구리 901 소백산수련원
- 책신청 : (054)637-9810**